

어르신이 경험하는 건축과 도시공간*

한승연·최기윤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원

고령자 인식·만족도조사 도입 취지와 배경

우리나라는 2017년 8월 고령사회 진입(65세 이상 14.2%) 이후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진입(65세 이상 20% 초과)하는 데 이어 2067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46.5%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통계청, 2018, p.17; 통계청, 2019, p.37). 우리나라 국민 2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상황이 펼쳐지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건축·도시공간은 이를 이용하고 경험하는 이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해야 하므로, 빠르게 진행 중인 고령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고령자를 비롯하여 전 연령대의 지역주민이 건강하게 나이들어 갈 수 있도록 ‘고령친화적 건축·도시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고령친화적 건축·도시공간 조성을 위해서는 현시점에서 건축공간과 도시환경의 조성 실태와 함께 실제 사용 경험에 따른 인식과 만족 수준을 진단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우리나라의 고령사회 대응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3년 주기로 시행되는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관련 정책과 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근거자료로 활용한다. 전국 만 65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노인실태조사는 고령자의 경제 상태,

* 이 글은 고영호 외(2021)의 일부 내용을 발췌, 정리하여 작성하였다.

건강 상태, 여가 및 사회활동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외부공간이나 지역 생활편의시설, 주택 등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물리적 생활환경에 관한 내용은 보건복지 영역에 대한 내용에 비해 간과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축공간연구원에서는 건축공간과 도시환경에 대한 정성적 설문조사를 통해 어르신들의 이용실태와 인식·만족도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2020년을 시작으로 향후 10년간 고령층에 진입하게 되는 베이비붐 세대를 조사 대상자에 넣어 기존 고령세대와의 차이를 이해하고, 기존 고령자와 예비고령자 모두를 고려한 고령친화적 건축·도시공간 조성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어르신이 경험하는 건축공간 현황과 시사점

건축공간연구원은 어르신들이 현재 살고 있는 집과 일상적으로 마주치는 지역 생활편의시설(상업시설·의료시설·공공여가시설·문화시설·체육시설)의 이용 경험을 파악하는 ‘고령자 건축공간 인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글에서는 전국 만 55세에서부터 84세까지의 어르신 1,500명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이 어떤 시설을 이용하였는지, 무엇을 불편해하였는지, 얼마나 만족하는지 등을 조사한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주거공간의 낙상사고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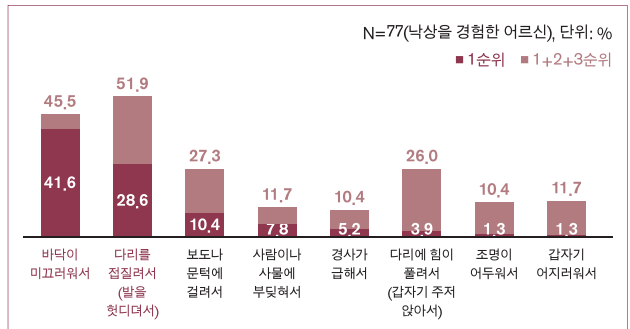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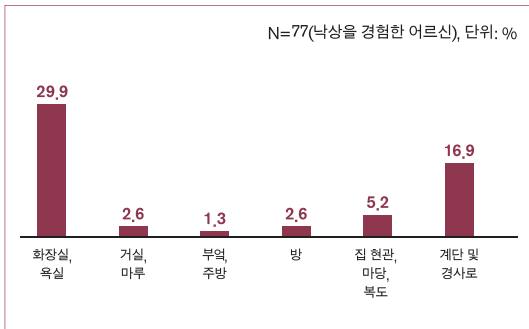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어르신들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상태가 대체로 양호하다고 말하였다. ‘집의 구조 안전, 환기, 채광, 재난·재해 안전’ 등이 양호하다고 응답하였으며, 반면 ‘주택 내·외부 소음’과 ‘낙상 안전 상태’는 다른 항목 대비 불량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고령자 낙상사고의 74%가 주택에서 발생하였으며, 70대의 낙상사고 비율이 43.8%를 차지하였다(공정거래위원회 외, 2022, 8월 30일 보도자료).

고령자 건축공간 인식·만족도 조사에서 연령과 관계없이 낙상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인지능력과 신체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낙상사고를 예방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유니버설 디자인 적용 등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으나, 조사 결과에 의하면 안전손잡이, 휠체어 등이 통행 가능한 넓은 출입문, 응급 비상벨 등 편의설비가 설치된 사례는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공간에서 어르신들에게 가장 불편한 곳은 화장실이다. 주거공간마다 특정 상황의 불편한 정도를 조사한 결과, 화장실의 미끄러운 바닥이 불편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24.9%) 나오는 등 화장실이 다른 공간에 비해 불편하다는 응답이 두드러지게 많았다. 화장실의 ‘미끄러운 바닥’ 다음으로 ‘욕조가 높아 들어가기 불편함’(16.2%), ‘욕조 내에서 앉거나 일어설 때 불편함’(15.1%) 순으로 높았다.

화장실은 물을 사용하는 공간이므로 누구나 미끄러지기 쉬운 환경이다. 이번 조사에서도 화장실은 어르신들이 낙상사고를 가장 많이 경험한 장소이며, ‘바닥이 미끄러워서’(41.6%) 낙상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다리를 접질려서’(28.6%), ‘문턱 등에 걸려서’(10.4%) 등의 이유로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 미끄럼방지 등 안전한 바닥재나 안전손잡이와 같은 편의설비를 설치하여 낙상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나, 안전한 바닥재를 설치한 사례는 20%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안전한 바닥재를 설치하지 않은 80%의 어르신 중 과반수가 안전한 바닥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처럼 어르신들은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편의설비 설치로 이어지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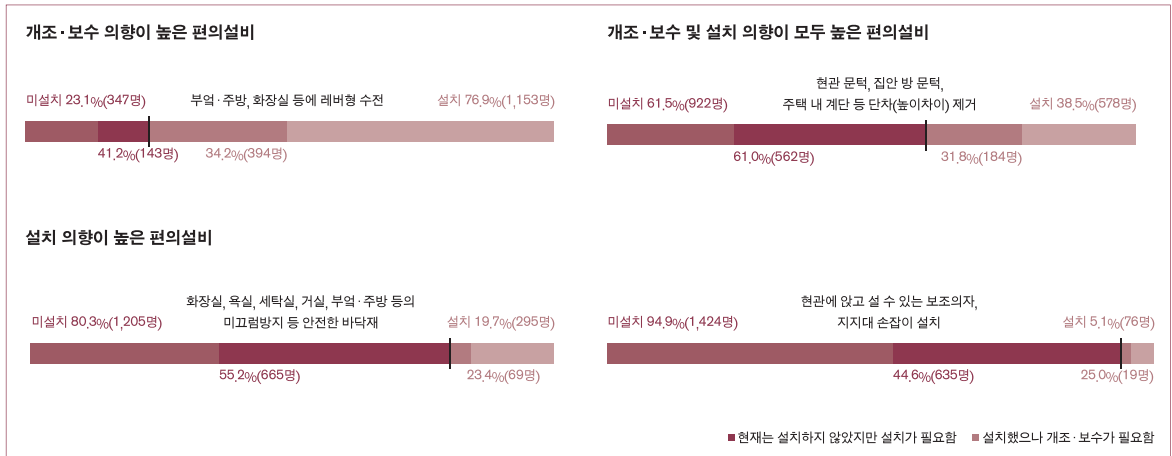


주택에서 낙상을 경험한 장소(좌)와 낙상을 경험한 이유(우)

출처: 고영호 외(2021, p.29)

주거공간의 안전사고 예방 필요

화장실의 미끄러운 바닥, 방을 구획하는 문턱의 단차, 손잡이가 없는 계단 등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불편함은 주택 개조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이에 미끄럼방지 바닥재나 안전손잡이 같은 편의설비와 문턱 단차 등의 개조·보수·설치 의사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①설치하였으나 개조·보수 의향이 높은 편의설비는 레버형 수전이, ②설치 의향이 높은 편의설비는 미끄럼방지 등 안전한 바닥재와 안전손잡이 등이, ③개조·보수 의향과 설치 의향이 모두 높은 편의설비는 단차 제거로 조사되었다. 편의설비 설치 또는 개조·보수의 의향이 있으나 편의설비를 설치하지 않는 이유는 ‘생활에 큰 불편이 없어서’(67.4%), ‘개조 비용이 경제적으로 부담되어서’(55.5%)라는 응답이 많았다.* 다음으로 ‘주택 개조 과정이 번거롭고 엄두가 안 나서’(29.7%), ‘주택 개조에 대한 정보와 방법을 몰라서’(23.5%) 순으로 나타났다. 큰 불편이 없다고 느끼는 어르신들은 편의설비의 설치가 낙상 등 안전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현재는 저소득 또는 장애인 중심으로 주택 개조를 위한 지원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원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어르신들의 소득수준뿐만 아니라 건강 상태, 거주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검토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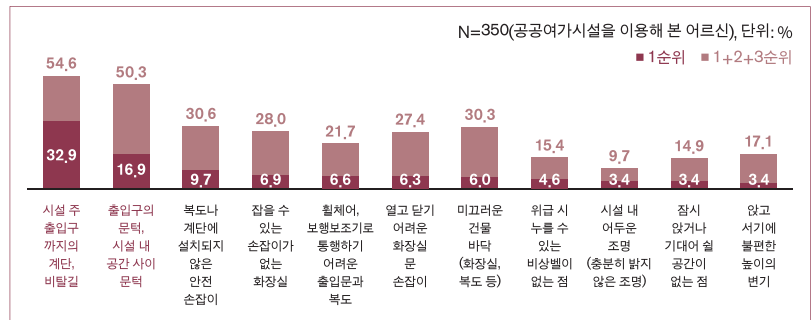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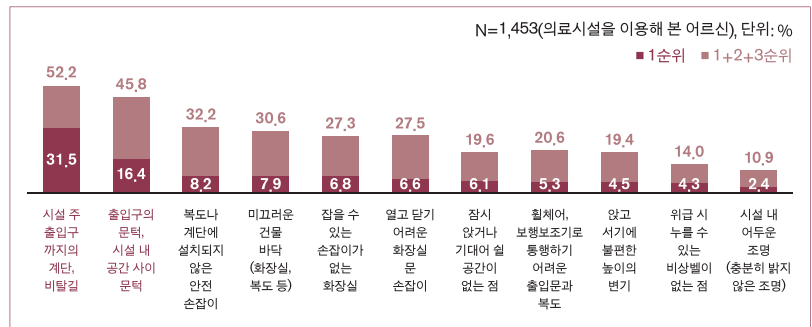
노후생활을 위한 편의설비 설치 여부 및 개조·보수 또는 설치 필요 여부

출처: 고영호 외(2021, pp.18-25)

베이비붐 세대의 수요를 고려한 지역 생활편의시설 조성 필요

2019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에 의하면, 베이비붐 세대는 소득 수준에서부터 기존 고령세대와 차이를 보인다. 50대 그룹의 소득 하위 20%와 차하위 20%의 비율은 각각 6.8%와 15.8%이며, 60대 이상 그룹의 소득 하위 20%와 차하위 20% 비율은 각각 78.9%와 42.8%로 50대 그룹과 60대 이상 그룹의 소득수준이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50대 그룹의 47%는 가구소득 상위 40%에 해당하였다.

고령자 건축공간 인식·만족도 조사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는 기존 고령세대와 주로 이용하는 시설 종류에서도 차이를 보였다. 공공여가시설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경로당을, 연령이 낮을수록 종합사회복지관과 구청 및 노인교실의 이용률이 높았다. 문화시설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문화센터를, 연령이 낮을수록 영화관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기존 고령세대와 신중년 세대가 이용하는 시설의 종류가 다른 경향은 상



의료시설 이용 시 불편하였던 설비(상)와 공공여가시설 이용 시 불편하였던 설비(하)

출처: 고영호 외(2021, p.63, p.67)

* 응답 비율은 1순위와 2순위를 더한 값

**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9),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ITITLE&menuId=M_01_01#contentgroup.

업시설, 체육시설, 의료시설 등에서도 나타났다. 따라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이 확대될수록 지역 생활편의시설의 이용 수요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문화시설과 체육시설 등을 조성할 때 이용자의 수요조사가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한편 연령대에 따라 주로 이용하는 시설의 종류는 다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시설 이용에 가장 불편한 요인은 시설 유형과 관계없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 이용에 불편한 요인 1, 2순위는 ‘시설 주출입구까지의 계단 및 비탈길’과 ‘출입구의 문턱 및 시설 내 공간사이의 문턱’이었다. 따라서 시설 조성 시 출입구의 단차 제거, 안전한 이동을 위한 손잡이 설치, 앉아서 쉴 공간 마련 등 기본적인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어르신이 경험하는 도시환경 현황과 시사점

고령친화 도시환경을 구성하는 주요 시설·장소(외부공간·시설, 대중교통·시설, 정주환경)에 대한 어르신들의 인식과 만족도를 살펴보고자 ‘고령자의 도시환경 인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국 만 55세에서부터 84세까지의 어르신 1,604명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생활환경의 주요 시설·장소에 대한 이용 접근성과 안전성, 편의성 등을 조사한 주요 결과를 소개한다.

외출 시 가장 불편한 공간은 보행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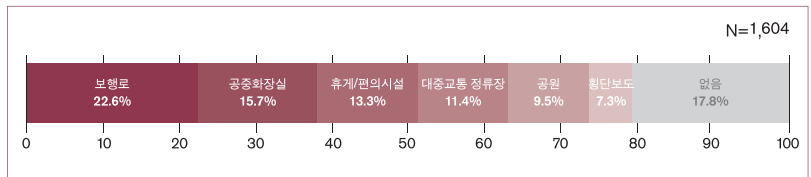
어르신들이 집 밖에서 자주 경험하는 공간인 보행로*는 가장 불편하면서 낙상 경험과 가능성도 가장 높은 장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만족도 조사 결과, 어르신들은 외출 시 보행영역 장애물, 안전하지 못한 보행노면, 충분하지 않은 보행공간 등 보행로에서 다양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었다. 그중에서도 ‘보행 방해물로 인해 차도로 걸어야 하였던 경험’(30.6%)이 가장 많았는데, 불법 주차 차량이나 간판 등이 보행로를 가로막거나 점유하고 있어 실질적인 보행로 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움푹 파이거나 깨진 보도블록 등 ‘매끄럽지 않은 보행노면’은 어르신

* 인식·만족도 조사에 응답한 어르신 10명 중 7명 이상은 주 5회 이상(매일 외출 53.0%+주 5-6회 외출 17.2%) 걸어서 외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들의 가장 큰 낙상 이유(27.1%)였으며, 특히 보조기나 휠체어를 사용하는 어르신들의 40.0%는 보행영역의 안전노면 처리가 미흡해서 불편을 겪은 경험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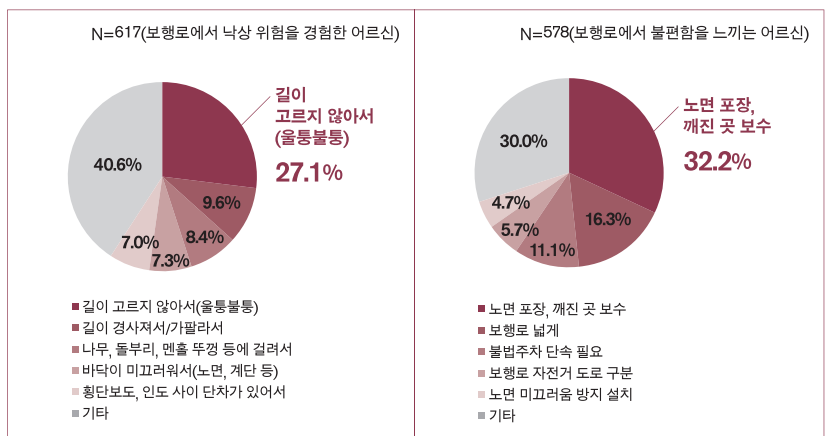
보행로 개선점으로는 ‘노면 포장, 깨진 곳 보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32.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보행로 폭 확대’(16.3%)와 ‘불법주차 단속’(11.1%) 등의 의견이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을 위해서는 보행로에 대한 접근성은 물론 보행영역의 장애물 제거 및 유효 보도폭 확보, 노면포장 관리 등 보행로 이용에 있어 안전과 편의성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뤄질 필요가 있다.

어르신들의 경우 허리나 다리 통증 등으로 쉬지 않고 장시간 걷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보행 중간에 쉬어갈 수 있는 시설과 공간의 마련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휴게·편의시설에 대한 인식·만족도 조사 결과, 어르신 4명 중 1명은 ‘보행 중 쉬어갈 곳이 없어서 힘들었던 경험’(25.9%)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공간 내에 어르신들을 배려한 벤치 등의 휴



외출 시 이용이 가장 불편하거나 어려운 공간

출처: 고영호 외(2021, p.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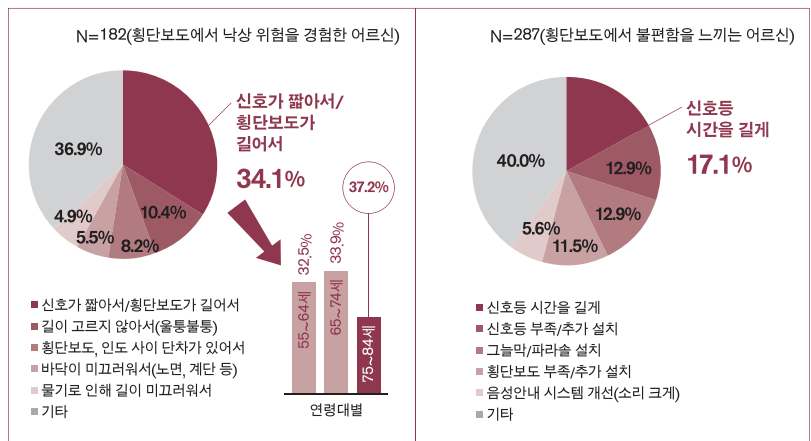
보행로 낙상 이유(좌)와 개선점(우)

출처: 고영호 외(2021, p.39)

게시설과 공간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휴게·편의시설 편의성에 대한 조사 결과, 고령자의 신체 특성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응답이 비교적 높게(32.4%)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양적 확충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팔걸이·등받이 등 고령자의 신체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의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여유롭지 않은 횡단보도 보행시간

길을 걸거나 운전을 하다 보면 다급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르신을 쉽게 볼 수 있다. 상대적으로 걸음과 반응속도가 느린 어르신들에게 횡단보도 보행시간은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며, 이 때문에 보행신호가 끝나기 직전에 겨우 건너거나 심지어 미처 다 건너지 못해 횡단보도에 고립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실제로 국내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사고 유형 중 도로 횡단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횡단보도 이용에 대한 인식·만족도 조사 결과, 개선점으로 ‘보행신호를 길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며(17.1%), 횡단보도에서의 낙상 이유로는 ‘횡단보도가 길거나 보행신호가 짧아서’가 34.1%로 가장 높았다. 특히 보행보조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보행속도가 더 낮기 때문에 횡단 시 보행시간이 짧다고 느끼는 비중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4배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안전한 보행 및 횡단을 위해서는 보행속도 등을 고려하여 횡단 보행시간을 충



횡단보도 낙상 이유(좌)와 개선점(우)

출처: 고영호 외(2021, p.45)

분히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중앙보행섬 설치를 통해 횡단거리를 줄이거나 횡단보도 대기시설을 마련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르신은 현 지역사회에 계속 거주하고 싶어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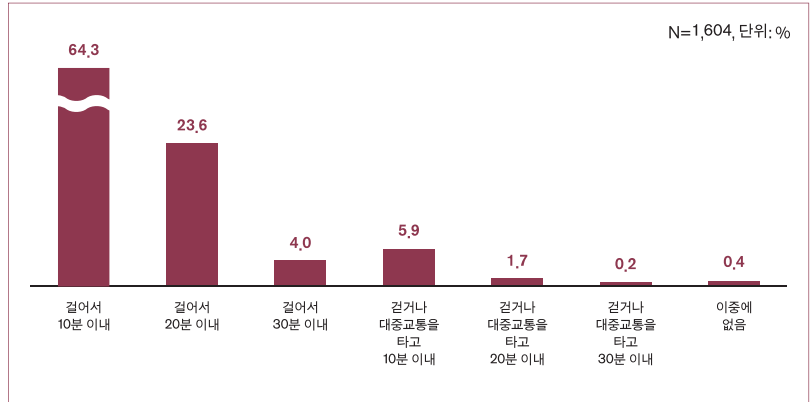
나이가 들어도 자신이 살아온 동네나 지역사회에서 벗어나지 않고 노후를 보내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AIP)는 고령사회에 대응해 추구해야 할 가치이자 중요한 개념이다. 현 지역사회 계속 거주에 대한 인식·만족도 조사 결과, 지역마다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의 어르신이 ‘현재 거주하는 지역 또는 동네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90.0%)하였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계속거주 의향도 높게 나타났다.** 한편 ‘거주지역의 생활환경이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66.1%)은 비교적 낮았으며 이를 통해 어르신 입장에서 지역의 생활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어르신들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살아온 동네에서 어려움 없이 오랫동안 살아갈 수 있는 고령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어르신들을 배려한 외부공간(보행로, 횡단보도, 공원 등) 조성과 함께 일상생활에 필요한 지역 생활편의시설(의료시설, 복지시설 등)에 대한 이용 접근성과 편리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집에서부터 지역 생활편의시설까지 적정 거리를 조사한 결과, 절반 이상의 어르신이 ‘걸어서 10분 이내’(64.3%)라고 응답하였다. 어르신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는 도보권 내에 근린생활권이 위치하기를 희망하였으며, 특히 도보 10분 이내의 근접한 거리를 가장 선호하였다. 따라서 고령친화적인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어르신들의 보행 활동 반경 내에 편의·의료·복지시설 등이 적절히 위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시설 수요에 대한 인식·만족도 조사 결과, 공공시설(57.2%)과 편의시설(67.7%), 의료시설(61.7%)에 대해서는 대체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여가시설(36.9%)이나 체육시설(39.7%), 복지시설(42.6%)은 부족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아울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도보권 내에

* 전체 보행 사망자 중 노인 보행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50.5%, 2018년 56.6%, 2020년 57.5%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행정안전부, 2021, p.1), 2011~2020년 고령 보행자 사망사고 유형 중 ‘도보 횡단’은 전체의 66%로 가장 높다(동아일보, 20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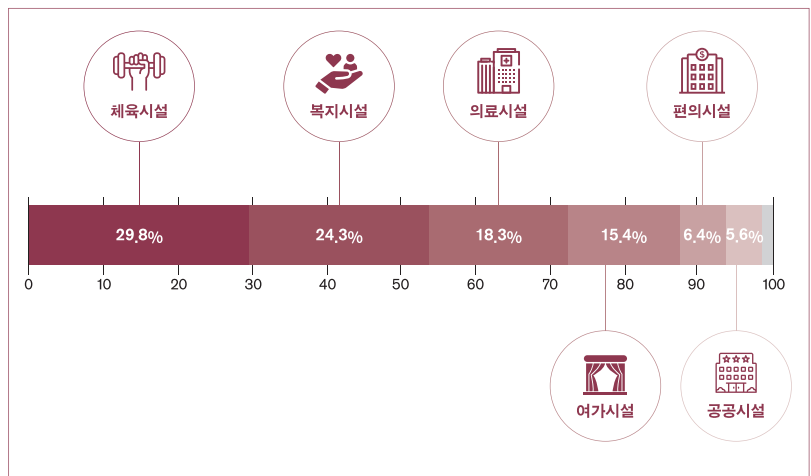
** 조사 결과, 현 지역사회 계속 거주 의향은 75~84세(92.8%), 65~74세(90.9%), 55~64세(87.8%)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집에서 지역 생활편의시설까지의 적정 거리

출처: 고영호 외(2021, p.94)

추가로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은 체육시설(29.8%), 복지시설(24.3%), 의료시설(18.3%) 순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별 차이를 보였다. 65~74세 연령대는 체육시설(32.0%), 75세 이상 고령층은 노인정 등 복지시설이 더욱 필요하다고 응답한 것과 달리 55~64세 연령대는 다른 연령대에 비해 여가시설에 대한 수요가 비교적 높았다. 이들은 지역 내에 극장 등 여가시설이나 공원,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이 증설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향후 10년간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를 고려하였을 때 이들의 여가·체육 활동에 대한 수요와 변화를 파악하여 이를 충분히 반영한 외부공간과 시설을 조성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보권 내 추가 필요 시설

출처: 고영호·최가운(2020, p.122)

고령자의 건축공간 인식·만족도 조사와 고령자의 도시환경 인식·만족도 조사에서 모두 대부분의 어르신이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한다는 의향을 밝혔다. 심지어 거동이 불편해지더라도 현재 살고 있는 집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어르신이 많은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감사원 보고서(2021)에 의하면 전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7년 707만 명(총인구의 13.8%)에서 2047년에는 1,879만 명(총인구의 39.4%)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리 동네 살기 좋아’라고 말하는 어르신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즉 어르신들이 현재 살고 있는 동네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경험하는 건축·도시공간의 특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어르신들에게 친숙하고 건강한 건축도시 환경을 진단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고령친화적 건축·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 근거자료로서 인식·만족도 조사 결과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변화하는 어르신들의 특성과 물리환경에 대한 인식·만족도를 이해하기 위한 패널조사 운영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1 감사원. (2021). 감사보고서 - 인구구조변화 대응실태 I (지역) -.
- 2 고영호, 최가윤. (2020). 고령자의 도시환경 인식 및 만족도 조사. 건축공간연구원.
- 3 고영호, 한승연, 최가윤, 허재석. (2021). 어르신들이 이야기하는 건축과 도시공간. 건축공간연구원.
- 4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농촌진흥청. (2022). 고령자 안전사고 10건 중 6건이 낙상사고로 나타나. 8월 30일 보도자료.
- 5 동아일보. (2022). 보행중 사망 58%가 노인...교통사고 많아도 ‘보호구역’ 설정 안 돼. 6월 8일 기사.
- 6 통계청. (2018). 2017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청.
- 7 통계청. (2019).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 통계청.
- 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9). 재정패널조사 - 2018년 소득5분위별 가구주 특성. 통계청. https://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vwcd=MT_ZTITLE&menuId=M_01_01#contentgroup(검색일: 2021.10.31).
- 9 행정안전부. (2021).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 높은 지역 특별 점검 시행. 11월 8일 보도자료.